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지출 : 2012~2020

2022. 04. 25

발표자 : 이 종 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¹

1. 본 자료는 발표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발표자의 소속기관과는 관련이 없음

목차

1. 서론
2. (현금)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공식, 비공식 소득 추이
 - 인구 집단별 소득 분포
 - 회귀분석 결과
3. 지출 측면에서 살펴 본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북한 가계의 소비지출 구성
 - 생활 수준 지표 산출
 - 생활 수준 격차 추정
4. 요약 및 결론

1. 서론

◆ 배경

-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후생 수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 보건 영양 지표 (홍제환, 2019; 김규철, 2020)
 - ✓ 식생활, 식량 공급량 (최용호, 2020; 홍제환, 2021; 정은미, 2021)
 - ✓ 재산 보유 실태 (김석진, 2019; 정은미, 2020)
 - ✓ 인공위성 야간 조도 (김규철, 2020; 김다울, 2021)
- 이 장에서는 2012~2020년 수행된 북한사회변동조사 중 소득 및 지출 관련 응답을 종합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분석을 시도

1. 서론

◆ 연구의 기여 및 차별점

-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요약지표 제시
 - ✓ 탈북민의 북한 거주 당시 개인 월 소득 규모
 - ✓ 식생활(식사 횟수, 곡물 배율, 고기 섭취 빈도), 지출 구성(식비, 의복비, 주거비, 교육비, 저축)을 종합한 후생 지표
- 시기적 추세 파악 뿐 아니라 개인별 정보를 활용한 분석 실시
 - ✓ 집단 간 생활 수준 격차 (지역별, 성별, 공식직업, 비공식 소득원, 당원여부 등)
 - ✓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도 분석

1. 서론

◆ 주요 연구 질문

-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제재 강화 이전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얼마나) 악화되었는가?
- 북한에서 생활 수준이 높은(낮은)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가?
- 북한의 소득 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소득 데이터 분석의 기본 전제

- 본 자료는 탈북 직전 시점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함
- 현물 소득을 포함하여 응답하라는 지침이 주어지지 않아 현금 소득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 현물 소득 : 배급, 국영상점 물품 교환권, 물물교환 등
- 평균 소득은 소수의 극단값(outlier)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주로 사용
 - ✓ 표본 수가 많지 않은 본 조사의 특성 상 시기별/집단별 평균 소득의 크기는 소수의 고소득자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안정적 비교가 어려움
- 2010년 초반 소득자료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탈북 시기에 따라 큰 격차
 - ✓ 화폐개혁 이후 2012년까지 장마당 물가가 급등세를 보였으며 2013년 초부터 안정화
 - ✓ 2011~12년 탈북민의 (명목)소득은 이후 시기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여 분석에서 제외하며, 2013년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분석 실시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공식, 비공식 소득수준

- 북한 주민들은 (현금) 소득의 대부분을 비공식 부문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
 - ❖ 공식 소득 : 공식 직장에 나가서 국가로부터 받은 생활비,
비공식 소득 : 장사 등 공식 직장 외 다른 부업(더벌이)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 ✓ 비공식 부문에서 소득이 있었던 응답자 비율은 76.9%로 공식 부문(42.3%)을 크게 상회
- ✓ 소득 규모 면에서도 비공식 부문이 중앙값 기준 50만원으로 공식 소득(2,000원)의 250배, 평균 소득 기준으로는 21.1배에 달함
- ✓ 다만, 배급 등 현물소득을 고려하면 현금 소득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에 유의

북한 주민의 부문별(공식/비공식) 개인 현금소득(월)

	사례 수 (명)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무소득 제외	무소득 포함	무소득 제외	무소득 포함
공식 부문 ^b	873	42.3	81	34	2	0
비공식 부문		76.9	1,707	1,311	500	300
차이(배율)		34.6%p	21.1배	38.2배	250배	-

주 : a) 이 표는 2013-20년 중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됨

b) 공식부문 소득은 배급 등 현물 소득이 제외되어 있을 수 있어 과소 추정 가능성이 있음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시기별 소득 추이

- 2013-14년 대비 2015-17년 중위소득(40만원 → 50만원), 유소득비율(87.1% → 89.6%)이 모두 증가한 반면, 2018년 이후에는 직전 시기 대비 유소득 비율이 6.6%p 감소하며, 제재 강화 이후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다소 위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개인 월 소득 추이

탈북시기	사례 수 (명)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무소득 제외	무소득 포함	무소득 제외	무소득 포함
2013-14년	295	87.1	2,053	1,789	400	300
2015-17년	355	89.6	1,234	1,106	500	350
2018년 이후	223	83.0	1,379	1,144	500	353
전체 시기	873	87.1	1,547	1,346	500	300

주 : a) 이 표는 2013-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에 기반하며 개인의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을 합산한 총 현금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임.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성별 소득 차이

- 남성의 개인 소득이 참여율 및 규모 면에서 모두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 유소득 비율은 남성이 89.6% 여성(85.4%)보다 4.2%p 높았음
 - ❖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남성 60.0%, 여성 30.7%) 차이가 컸으나, 비공식경제활동 역시 남성이(77.1%) 여성보다(76.1%) 낮지 않았음
 - ✓ 중위 소득 기준 남성이 50.3만원으로 여성(40만원)보다 26%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가구 내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 유지에 여성이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성별로 종사 업종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
 - ❖ 여성은 소매장사가 34.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외화벌이, 도매장사, 소매장사, 임노동 등 다양한 업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기타’ 응답 또한 많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밀수’인 것으로 추정

북한 주민 월 소득의 성별 차이

	사례 수(명) ^a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남성	345[309]	89.6	1,763	503
여성	528[451]	85.4	1,399	400
차이(배율)		4.2%p	1.26배	1.26배

주 : a) 괄호 안의 숫자는 중위 소득 및 평균 소득 계산 시 유효 사례 수로 공식/비공식 부문 중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한 피조사자 수를 의미함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지역별 소득 분포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평양, 남포, 평안남도 지역의 중위 소득은 48만원, 경제활동 참여율 80.0%로 타 지역 대비 오히려 소폭 낮게 나타남
 - ✓ 한편, 중위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함경남도, 강원도(30만원) 이며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안북도, 자강도 (75만원)
 - ❖ 평안북도, 자강도는 북중 무역과의 관련 가능성이 있으나,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일반화 곤란

북한 주민 월 소득의 지역별 차이

	사례 수(명) ^b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수도권	35[28]	80.0	1,773	480
개성, 황해도	21[17]	81.0	533	301
평안북도, 자강도	16[13]	81.3	2,817	750
함경남도, 강원도	48[41]	85.4	635	300
함경북도	260[229]	88.1	1,234	400
량강도	492[431]	87.6	1,789	500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기타 집단별 개인 소득 분포

		사례 수(명) ^b	유소득 비율(%)	평균소득(천 원)	중위소득(천 원)
당원 여부	당원	135[130]	96.3	1,487	500
	비당원	730[620]	85.4	1,597	476
최종학력	인민학교	18[11]	61.1	590	600
	고등중학교	598[510]	85.3	1,439	500
	전문학교	150[130]	86.7	1,564	503
	대학교	101[85]	84.2	2,558	400
공식직업	노동자	256[227]	88.7	1,450	500
	농민	56[44]	78.6	405	201
	사무원	77[71]	92.2	2,386	302
	전문직(의사, 기술자 등)	44[38]	86.4	799	368
	학생	57[28]	49.1	577	301
	군인	44[38]	86.4	639	375
	외화벌이일군	20[20]	100.0	2,529	1,000
	장사	103[99]	96.1	1,939	702
	가정주부	134[112]	83.6	1,837	360
계층인식	상층	82[70]	85.4	3,902	1,002
	중층	559[479]	85.7	1,695	502
	하층	231[190]	82.3	413	201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회귀분석: extensive margin

종속변수 : 1(개인소득 >0)				
대북제재 더미 (2018년 이후 =1)	-0.568*** [0.214]			
성별 (1=여성)	-0.316 [0.214]	-0.372 [0.264]	-0.295 [0.218]	-0.300 [0.216]
나이	0.261*** [0.046]	0.250*** [0.046]	0.256*** [0.047]	0.250*** [0.045]
나이 제곱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당원여부 (1=당원)	0.916* [0.471]	0.908* [0.467]	0.909* [0.467]	0.891* [0.467]
고등교육여부 (1=전문학교 이상 졸업)	-0.120 [0.232]	-0.116 [0.237]	-0.095 [0.236]	-0.107 [0.238]
외화벌이 관여 여부	1.164*** [0.390]	1.098*** [0.399]	2.053*** [0.757]	1.153*** [0.423]
지역 (ref: 접경지역)				
수도권	-0.600 [0.468]	-0.536 [0.454]	-0.503 [0.462]	-0.478 [0.485]
비접경	0.107 [0.377]	0.108 [0.405]	0.108 [0.402]	-0.188 [0.452]
상호교차항				
제재 * 여성		0.245 [0.452]		
제재 * 외화벌이			-1.832** [0.923]	
제재 * 수도권				-0.813 [1.125]
제재 * 비접경				1.101 [0.964]
탈북연도 더미		불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875	874	874
Pseudo R ²		0.104	0.129	0.135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회귀분석: extensive margin

- 대북제재 강화 이후(탈북연도 2018년 이후) 유소득 응답률이 감소
 - ✓ 대북제재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매우 유의한 음수(-0.568)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제재가 개인의 소득 발생 가능성을 평균 대비 9.0% 낮춘 것으로 해석됨
- 그 밖에는 연령, 당원여부, 외화벌이 관여 여부 등이 소득 발생 확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 외화벌이 경험이 있는 탈북민과 당원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해 소득 발생 확률이 높았음
 - ✓ 연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높아지다가 40대 초반 이후로는 낮아짐
- 상호교차항 추정 결과 대북제재 강화 이후 특히 외화벌이 관여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주로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 흐름을 차단하여, 일반적인 북한 주민보다는 외화벌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민들의 소득 발생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해석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회귀분석: intensive margin

종속변수 : Log(개인소득)				
대북제재 더미 (2018년 이후 =1)	0.011 [0.277]			
성별(1=여성)	-0.155 [0.247]	-0.340* [0.161]	-0.122 [0.250]	-0.114 [0.255]
나이	0.231*** [0.038]	0.216*** [0.042]	0.218*** [0.043]	0.216*** [0.044]
나이 제곱	-0.003*** [0.000]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당원여부(1=당원)	-0.613* [0.281]	-0.621* [0.287]	-0.613* [0.294]	-0.616* [0.299]
고등교육여부(1=전문학교 이상 졸업)	-0.077 [0.154]	-0.089 [0.149]	-0.080 [0.144]	-0.082 [0.145]
외화벌이 관여 여부	1.099*** [0.144]	1.048*** [0.158]	1.065*** [0.183]	1.002*** [0.157]
지역 (ref: 접경지역)				
수도권	-0.335 [0.389]	-0.290 [0.435]	-0.306 [0.407]	-0.372 [0.438]
비접경	-0.075 [0.268]	-0.040 [0.241]	-0.071 [0.262]	-0.080 [0.157]
상호교차항				
제재 * 여성		0.969** [0.348]		
제재 * 외화벌이			-0.223 [0.396]	
제재 * 수도권				0.888 [0.691]
제재 * 비접경				0.048 [0.944]
탈북연도 더미		불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742	742	742
Adjusted R ²		0.052	0.069	0.062

2. 소득으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회귀분석: intensive margin

- 대북제재 강화 이후(탈북연도 2018년 이후)에도 소득 금액이 감소하지는 않았음
 - ✓ 강화된 대북제는 개인 소득의 규모(intensive margin) 보다는 소득 창출활동에 대한 참여율(extensive margin)에 영향
- 개인 특성 변수 중에서는 외화벌이 관여 여부가 소득 규모와 가장 뚜렷한 연관성
 - ✓ 외화벌이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던 탈북민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2배 이상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북제재 강화 이후 여성보다는 남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
 - ✓ 이는 북한에서 장마당 내 상거래 활동에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며, 무역 등 대외거래 관련 사업에는 남성이 많이 참여하는 등 종사 직군 차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 ✓ 즉, 대북제재가 북한 내부의 시장거래를 소득 기반으로 하는 집단보다는 대외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집단의 소득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시사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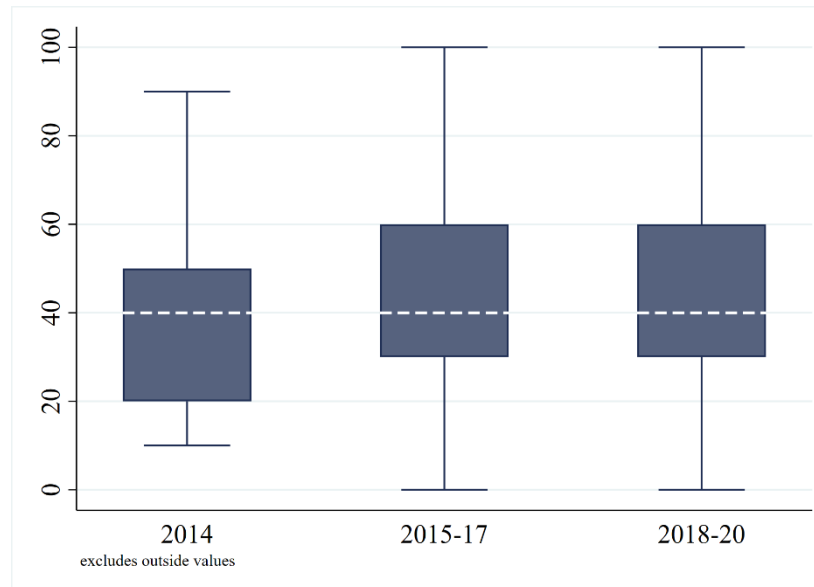
- 개인 소득 응답을 바탕으로 생활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
 - ✓ 소득과 지출 등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은 가구를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활 수준 결정에는 개인보다 가구 소득이 중요
 - ✓ 소득 응답은 현금 소득 외의 여타 생계 수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에 저소득층 및 공식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집단의 생활 수준을 체계적으로 과소추정할 가능성
- 본 절은 북한 가계의 지출 구성과 식생활 관련 응답을 종합하여 지출 측면에서 추정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지표를 제시
 - ✓ 더 나아가 북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 격차를 몇 가지 분배지표 계산을 통해 파악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소비 지출 구성: 식비

- 북한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로, 중간값 기준 40% 내외로 추산되며, 시기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일정함
- ✓ 북한 가계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중국의 2000년대(30~40%)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며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수준

소득 중 식비의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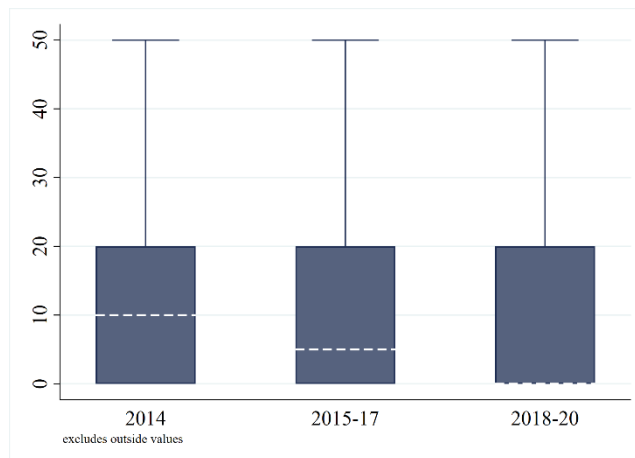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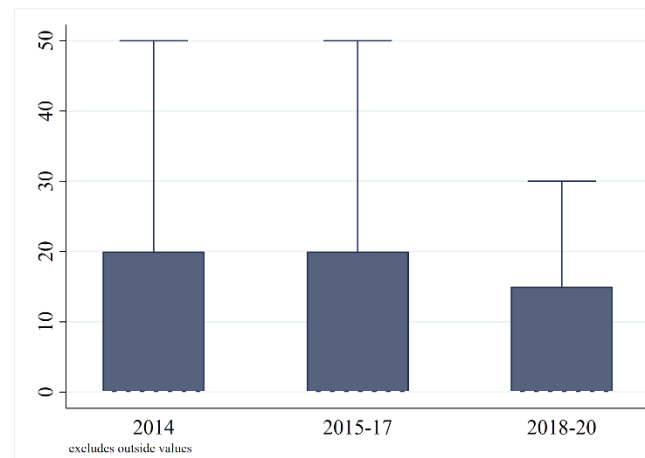
◆ 소비 지출 구성: 식비 외 지출

- 식비 다음으로는 의복비의 지출이 20% 정도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저축, 기타 응답이 나머지 지출을 구성
 - ❖ 다만 식량 배급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배급분을 제외하고 응답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북한 가계의 실제 식량 소비 비중을 다소 과소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식비와 반대로 교육비와 저축은 최근으로 올 수록 낮은 비중에 응답이 많아지는 모습
 - ✓ 교육비 지출의 중앙값은 2014년 10%, 2015-17년 5%에서 2018년 이후에는 0으로 하락
 - ✓ 저축의 중앙값은 모든 기간에 0이었으나 상위 그룹의 저축률이 2018년 이후 하락

소득 중 교육비 지출 비중



소득 중 저축 비중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생활수준 지표: 계산 방법 및 가정

- 기본 아이디어 : 식생활 관련 세 가지 질문(식사 횟수, 곡물 비율, 고기 섭취 빈도)을 토대로 식비 지출 금액을 추산하고, 소득에서 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추정
 - ① ‘1일 끼니 횟수’, ‘식사 시 입쌀과 강냉이 비율’ 응답을 통해 개별 피조사자의 1일 쌀, 옥수수 소비량을 계산
 - ② 일일 소비량을 월 소비량으로 변환하고, 2019년 평균 가격을 곱하여 월 (실질)곡물소비액 계산
 - ③ ‘고기 섭취 빈도’ 를 바탕으로 곡물 소비가 전체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정하여 총 (실질) 식비 지출을 추정
 - ④ 식비 지출금액을 소득 중 식비의 비중으로 나누어 월 소득을 추정
- 다만 이는 매우 단순화된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1인당 소득과는 상당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현금 소득과는 반대로 배급의 비중이 높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과대추정할 가능성에 유의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생활수준 지표: 계산 방법 및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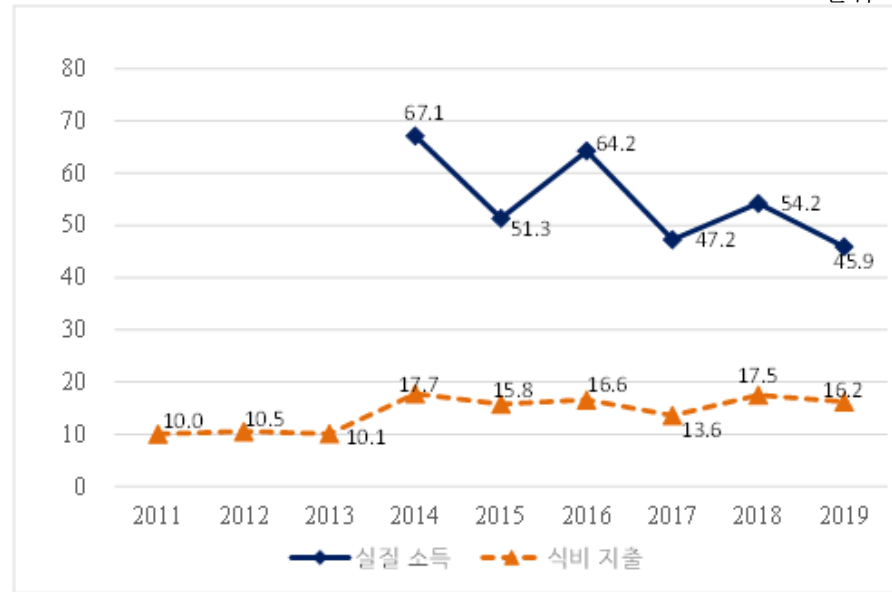
단계	가정				계산
① 일일 곡물 소비량	곡물 소비량		쌀 : 강냉이 비율		일일 쌀(옥수수) 소비량 = 곡물 소비량 × 쌀(옥수수) 비중
	하루 세 끼 이상	450g	거의 입쌀	9:1	
	하루 두 끼	300g	입쌀 위주 강냉이 혼합	7:3	
	하루 한 끼	200g	반반	5:5	
	하루 한 끼 미만	150g	강냉이 위주 입쌀 혼합	7:3	
		거의 강냉이	1:9		
② 월간 곡물 소비액	<p>한 달 = 30일</p> <p>2019년 쌀 가격 = 4,649원/kg</p> <p>2019년 옥수수 가격 = 1,501원/kg</p>				<p>일일 곡물 소비액 = 쌀과 옥수수의 (가격×일일 소비량) 합계</p> <p>월간 곡물 소비액 = 일일 곡물 소비액 * 30</p>
③ 월간 식비 지출	고기 섭취 횟수		식비에서 곡물 소비 비중		월간 식비 지출 = ② ÷ 식비 중 곡물 소비 비중
	거의 매일		15%		
	1주에 한 두번		30%		
	한 달에 한 두번		50%		
	1년에 한 두번		70%		
거의 먹지 못했다		80%			
④ 월간 실질 소득	전체 소득 중 식비 지출 비중(개별 응답)				월간 실질소득 = ③ ÷ 소득 중 식비 비중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생활수준 지표 : 시기별 추이

1인당 월 평균 식비 지출 및 소득 (실질)

단위 : 만 원



주 : 식비 지출 비중 응답이 2015년 이후 조사부터 포함되어(탈북연도 기준 2014년) 실질 소득은 2014년 이후 추정치만 계산되었음.

- 2014년 이후 실질 소득은 점차 감소하는 흐름, 2017년 이후 3년간 평균소득은 이전 3년 평균 소득 대비 19.4%나 감소(61.1만원 → 49.2만원)
- 반면 식비 지출은 큰 변화가 없어 제재 이후 실질소득이 감소한 주민들이 생계에 필수적인 식비보다는 다른 항목의 지출을 주로 줄였음을 시사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인구 집단별 생활 수준 차이

단위 : 북한 원 (기준년도 : 2019년)

		사례 수 (명)	평균		증양값	
			금액	전체 대비	금액	전체 대비
전체		694	560,755	1.00	345,938	1.00
출신 지역	수도권	24	806,090	1.44	650,130	1.88
	개성, 황해도	18	413,424	0.74	158,993	0.46
	평안북도, 자강도	13	1,385,574	2.47	975,195	2.82
	함경남도, 강원도	36	329,684	0.59	443,409	1.28
	함경북도	201	586,774	1.05	390,078	1.13
	량강도	401	521,593	0.93	332,100	0.96
당원 여부	당원	111	643,322	1.15	345,938	1.00
	비당원	573	548,800	0.98	345,938	1.00
최종학력	인민학교	13	475,539	0.85	250,061	0.72
	고등중학교	482	505,258	0.90	332,757	0.96
	전문학교	115	656,961	1.17	487,598	1.41
	대학교	77	802,848	1.43	487,598	1.41
공식직업	노동자	198	553,439	0.99	345,938	1.00
	농민	44	178,009	0.32	90,935	0.26
	사무원	54	540,984	0.96	487,598	1.41
	전문직(의사, 기술자 등)	38	707,427	1.26	333,414	0.96
	군인	36	547,973	0.98	325,065	0.94
	외화벌이일군	20	934,003	1.67	715,143	2.07
	장사	94	643,109	1.15	390,078	1.13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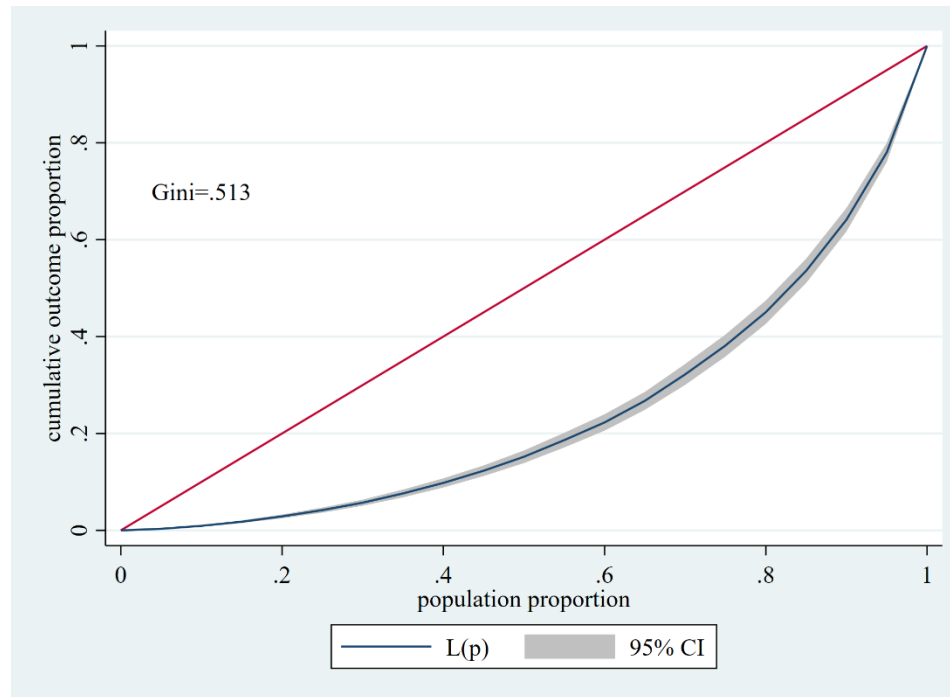
◆ 소득 불평등도

- 위에서 계산된 생활 수준 지표(실질소득)를 토대로 북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계산
 - ✓ 전체 표본기간 (2014~2020) 중 북한의 지니계수는 0.513으로 추정
 - ✓ 2019년 현재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 대략 0.5~0.6 정도의 지니계수를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북한의 소득 분배는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
 - ❖ 남아공 0.63(2014), 잠비아 0.57(2015), 브라질 0.53(2019), 콜롬비아 0.51(2019), 짐바브웨 0.50(2019)
 - ✓ 또한 북한의 상위 10% 소득분위 경계값은 130만원으로 하위 10% 경계값의 15.9배, 중위소득의 3.76배에 달함
 - ❖ 남한의 경우 이 배율이 2019년 기준 각각 9.79배, 2.27배
 - ✓ 시기별로 보면 2010년대 중반 대비 2010년대 후반의 소득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
 - ❖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거나, 중간 계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소득 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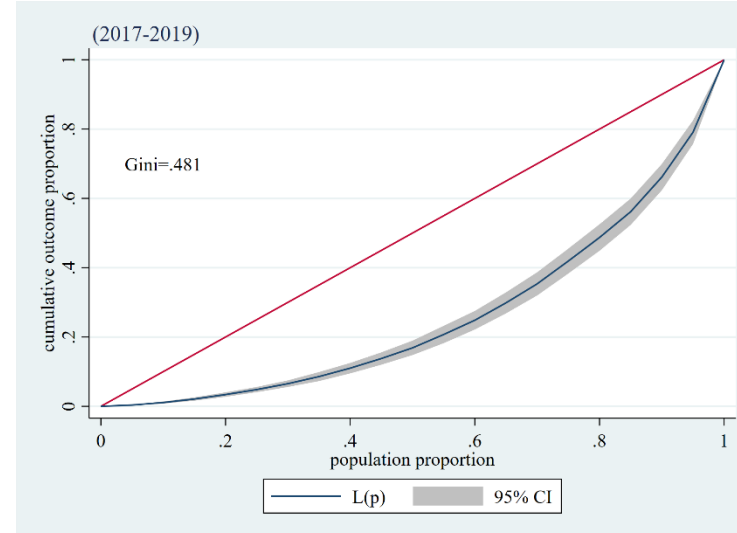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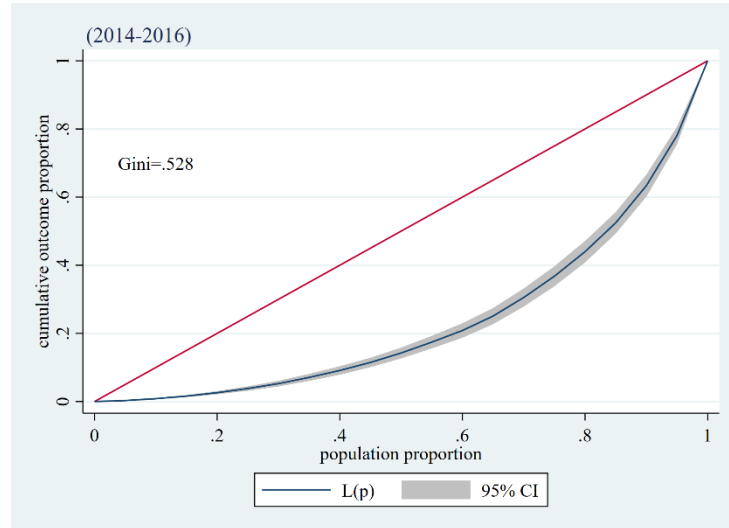
북한의 지니계수 추정 결과 (2014~19)



3. 지출 측면에서 평가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 소득 불평등도

시기별 북한의 지니계수 추정 결과 (좌: 2014-16, 우:2017-19)



감사합니다